

#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우리가 삶에서 구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평온이나 고요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침 일찍 동네 빵집에 들러 갓 구운 빵을 사고, 단팥 카페에서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으며, 오후엔 상수리나무 숲속을 거닐며 보낸다. 우리 인생은 아무 일없이 지나가는 밋밋한 하루들이 쌓여 이루어진다. 분명한 건 하루의 보람과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건 내적 열망과 엄청난 에너지를 품지 않고는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심심한 일상은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는가? 그걸 잊고 살다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우리는 화들짝 깨닫는다. 우리가 살아온 보통의 하루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가!

2022년 8월 12일 열한시 십오분 전, 사방이 화창한 금요일 오전이다. 그 시각 뉴욕시의 한 원형극장 무대에 올랐던 유명한 작가가 피습을 당한다. '악마의 시'로 알려진 일흔다섯 살의 작가 살만 루슈디가 그 피해자다. 그를 표적 삼은 가해자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중 하나로 스톨텐 넷 청년이다. 어디선가 느닷없이 튀어나와 노

## 하루의 보람과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작가의 목과 눈을 칼로 찢었지만 이 흥족한 '영웅'의 역겨운 의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루슈디는 열다섯 군데나 자상을 입고 눈 한쪽을 잃었다. 과연 가해자는 알았을까? 그가 휘두른 칼이 루슈디의 목을 관통했을 때 단박에 한 사람의 자유를 앗아갔으며, 일상과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루슈디는 죽음과 대면한 상태로 외상병 원으로 호송되어 칼에 깊이 베이고 찢긴 데를 금속봉합기로 고정한 채 수술을 받는다. 최고의 의사들이 맡은 외과수술은 잘 끝나고, 그는 고통 속에서 재활 훈련을 받으며 혼자 샤워를 하고 걷는 법을 배운다. 이제 그는 경찰과 보안회사 인력의 철저한 경호 아래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보통의 삶을 회복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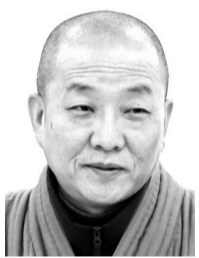
괴한이 루슈디를 공격한 도구는 칼이다. 칼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주방에서 그것은 조리 도구지만 누군가를 찌를 때는 무기가 된다. 하지만 칼은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다. 칼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중립인데, 그걸 손에 쥔 자의 의도에 따라 그 도덕적 평판이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것이다. 작가에겐 언어가 칼이다. 루슈디는 제 피습 과정의 전말을 담은 '나이프'라는 책을 펴내는데, 거기에서 '언어도 칼이었다. 언어는 세상을 베어 세상의 의미를, 그 내적 작동 방식과 비밀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언어는 하나의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베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쓴다.

따지고보면 인류는 태초 이래 폭력에 날 것으로 드러낸 채로 생존을 이어왔다. 인류 역사는 폭력에 얽힌 고약한 서사로 얼룩져 있다는 측면에서 폭력은 역사의 상

수이다. 그것은 개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소규모 폭행들 즉 교제 살인, 조리돌림, '학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의 유대인 학살, 일본 군대가 저지른 중국 난징 시민 도륙, 코메르루주가 벌인 자국민 150만 학살, 1980년 5월 항쟁 시민 학살까지 그 범주는 아주 넓다. 이 세상 어디에나 이 끔찍한 것이 편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것과의 투쟁에서 쟁취되는 것임을 뜻한다.

루슈디의 피습 사건이 일러주는 것은 폭력이 우리 일상의 어둠과 추악한 일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하고 약의에 의해 추동된 폭력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꺾고 행복을 일그러뜨린다. 폭력은 피해자의 몸애 위해를 입히고 인간 존엄을 부수며, 평생 잊을 수 없는 훼손의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폭력과 미구에 일어날 폭력 사이에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폭력은 우리 삶에 음침한 그림자를 드리운 채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엿본다. 우리가 발정난 신체로 먹고 웃으며 기도하고 산다는 건 지구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광기어린 폭력의 사육제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어떤 폭력도 용인되지 않아야 하며, 그것에 도덕적 정당성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류 공동체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대상이다. 우리 생명과 존엄, 가족의 안위, 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가치를 지켜내려면 우리는 폭력, 광기와 증오, 일체의 차별에 맞서야 한다. 우리 걸을 때도는 이 유령이 방심한 틈을 노려 우리를 공격할 공적하고, 일상의 안녕과 평화를 깨부술 것이기 때문이다.

### 종교칼럼



종현  
광주 침상사 주지

며칠 전까지 하루 종일 불탄 공양간의 폐허를 바라보며 살았다. 시꺼멓게 불탄 대들보와 서까래, 파편이 되어 흩어진 기왓장들, 휘고 일그러져 본래 형태를 알 수 없는 조리 설비들. 화재 현장이었던 그곳은 언제부터인가 공양간의 죽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김장 울력, 동지 울력... 폐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에서 꽃피웠던 많은 이들의 시간과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은 가장 일반적인 주제로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일본 열도를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들을 다시 기억에서 소환시키고 있다.

극중 '쇼타'는 '토지사'이다. 토지사는 지진이 형상화된 에너지 덩어리인 미미즈를 뿜는 저편으로 돌려보내고 뿜문을 잠그는 일을 한다. 미미즈를 가두는 것은 미미즈가 빠져나왔다면 생겼을 지진을 막는 것과 같다. 토지사는 이 세계에 벌여졌을지도 모를 엄청난 재앙을 막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사의 이런 행위는 폐허에 대한 천도의식이기도 하다. 폐허란 지진, 쓰나미, 산사태, 홍수, 태풍, 화재, 전쟁, 대형참사, 사람들의 무관심 등으로

## 재난을 마주하는 법

로 죽음을 맞이한 건물들로 황폐해진 터를 일컫는다. 풍경에 쓰이는 묘사로 건물들의 죽음이 표현되는 것은 인간에게 건물은 삶의 배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허는 단순하게 건물들의 죽음만은 아니다. 그 건물들이 살아 숨쉬던 공간, 건물들과 함께 했던 인간들의 기억과 감정과 온기가 폐허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다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폐허처럼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일까 토지사가 미미즈를 봉인하려면 그 건물들과 시공을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과 오롯하게 공명해야만 한다. 그래야 열쇠 구멍이 나타나고, 토지사는 항상 뚫어지고 있는 열쇠를 찾아 뿜문을 잠글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의 영혼을 추모하는 의식을 치른다. 산 자들이 죽은 이에게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산자의 배움으로 죽은 이는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천도의식은 죽은 이를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산 자들의 의식이다.

풀이나 나무는 죽어서도 여전히 자연의 일부이자 그 자체가 자연이다. 살았건 죽었건 다르지 않다. 그저 모습이 조금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나무를 죽여서 지은 집과 바위를 녹이고 모래를 갈아 만든 자동차는 더이상 자연이 아니다. 자연에서 가져온 것은 자연으로 돌려줄 때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든다. 그들이 인간에게 한낱 쓰레기더미나 폐허에 불과하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한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이 자연에서 가져왔으니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 역시 인간의 몫이다. 인간 자신은 물론이고 인간에게와 건물이 되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산 자가 죽은 이에게 치르는 천도의식이 그러하고, 토지사가 치르는 뿜문

봉인이 그러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에 이른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건물들 역시 처음 왔던 곳인 자연으로 되돌아가려면 살아있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건물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인간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다. 건물은 인간을 품고 인간과 함께 생을 이어왔다. 인간의 부재는 건물에게 곧 죽음과도 같다. 인간의 기억과 감정은 인간의 세계에 두고, 처음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이 떠나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온기와 감정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다. 건물들은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정작 추모하고 기리고 품어야 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다만 폐허의 겉모습만 본다. 폐허가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 폐허에 대한 추모는 폐허의 기억과 공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은 자연에게 되돌리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다. 그것이 건물의 죽음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공양간 건물을 지탱하던 기둥과 대들보, 시원한 풍경을 선물하던 넓은 유리창, 많은 이들의 한끼 식사를 책임지던 조리대...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려 한다. 함께 한 동안 받은 행복에 감사하며, 이런 모습으로 보내려니 가슴 찢어지는 아픔조차 차마 송구할 뿐이다.

'스즈메의 문단속'을 다시 보았다. 재난과 마주하는 법을 가르쳐 준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진심 어린 감사사를 드린다.

### 기고



정기연  
전 영남 신북초등학교 교장

광주 효동초등학교 출신 한강(54세) 소설가가 지난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으며 12월 10일에 시상식을 한다고 한다. 한국 사람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다음으로 두 번째 받는 노벨상이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강은 1977년 효동초교에 입학하여 1979년에 아버지 한승원을 따라 서울로 전학했으며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인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민족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처럼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고, 스포츠면에서도 세계 강대국을 물리치고 상위권 국가며,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계속 받아 상위권에 있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국가에서는 각 대학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가장 흠모하는 상인 노벨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제

## 노벨상에 대한 꿈을 이루자

외하고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인들도 노벨상에 꿈을 품고 끊임없이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벨상을 각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과학자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 평화와 과학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이다. 해마다 10월에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시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개최하는데 수상자에게는 800만 코로나(10억 2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준다.

노벨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으며 대부분 노벨상을 받는 미국인은 유대인이며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가정교육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23번 받았다. 일본은 각 분야에서 노벨상에 대한 꿈을 품고 도전하는 연구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것을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정부·연구자·국민이 함께 일본을 배우고 따라잡자 한다.

모든 상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노벨상은 더디 크는 나무처럼 어떤 분야에 면 앞날을 보고 장기간 연구계획을 세워 연구 주제를 잡아 꾸준히 집념을 품고 연구해야 하며 국가와 기업에선 노벨상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마다 전국 과학전람회 발명품전시회를 하는 데 우수 연구 작품과 연구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과학의 날에 초등학교에서 발굴한 학생에게 과학 꿈나무 상을 주고 있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급하고 성장하여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최고에 도전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노벨상에 도전하는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앞장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기초 과학에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노벨상에 대한 꿈나무를 발견하고 이들이 꾸준히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 평준화 시책으로 영재교육에 소홀하고 영재들이 발탁되어 특별교육을 못 받고 있다. 중등교육이 대학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류대학에 합격하면 선택한 전공 분야의 학과에서 정상에 도전하는 집념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데, 사실 우리나라의 일류 대학은 외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연구에는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진이 앞서고 있다.

노벨상에 대한 집념과 꿈을 학생에게 심어줄 사람은 교육하는 가정의 부모며 학교의 교사다.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만 안목으로 주제를 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기업은 연구자를 우대해야 한다. 세계의 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앞장서려면 그 나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 꿈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노벨상을 받는 것은 개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며 세계의 국가 사회 발전에 공로자가 되는 것이다.

### 社說

## 영광·곡성군수 승리 민주당 웃을 수만은 없다

전국적으로 4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두 곳에서 승리하면서 현상 유지로 끝났다.

민주당이 승리한 두 곳은 영광과 곡성으로 텃밭인 호남이다. 두 당 모두 텃밭을 사수한 만큼 아전인수식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텃밭 민심의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호남 재선거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장세일 후보가 41.08%로 2위 진보당 이석하 후보(30.72%)에게 10% 포인트 이상, 곡성군수 선거에선 조상래 후보가 55.26%로 조국혁신당 박용두 후보(35.85%)를 20%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지만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낙승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였다. 나아가 다음 지방선

거에서 호남 다자구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자구도를 바라는 지역 민심은 높은 투표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각각 70.1%와 64.6%였다. 특히 대선급 기초단체장 선거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영광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 3당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총력을 쏟아 유권자들은 높은 투표율로 화답했다.

이번 호남 재선거는 야 3당에게 호남에서 영원한 맹주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만큼 지역민들에게 다자구도인 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다. 혁신과 발전은 언제나 경쟁속에서 탄생했다. 이번 호남 재선거가 야 3당에게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아직도 스프링클러 없이 호텔이 개장해서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과 경찰은 우선적으로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체크한다. 스프링클러가 고장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일부러 작동 스위치를 꺼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의 작동은 초기 진화를 가능케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안전진단 분야 제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 아직도 스프링클러 없이 개장한 호텔이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호텔은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완비되지 않아도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안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만약 이 호텔이 작년이나 올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스프링클러를 완비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면, 문제의 호텔은 여전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이달말 해남군 화원면 봉오리 일대에 지상 5층·120실 규모의 4성급 수준 리조트호텔 '해남126 호시아 노'를 개장한다.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4·5층 객실에만 설치되고, 저층 객실 등 절반의 객실에는 설치되지 않은 점이다. 안전이 강화되면서 지난 2022년 개정 소방법에는 층수와 무관하게 숙박시설은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호텔은 2021년 건축허가를 받은 탓에 적용되지 않았다.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스프링클러 완비를 규정한 개정 소방법 시행 1년 전에 운송체(??) 건축허가를 받은 호텔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개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관광공사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체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장이 늦고 예산이 들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無等鼓

10·16재보선 영광군수 투표에서 지역 민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41.08%(1만2951표)의 득표율로 9683표(30.72%)를 얻은 진보당 이석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8373표(26.56%),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512표(1.62%)로 집계됐다. 영광군 전체 투표율은 70.1%를 기록하며,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혁신당과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20%p 넘는 차이로 졌다.

이를 두고 박지원 의원은 17일 "승리는 했지만 회초리를 맞은 선거"라고 표현했다. 영광군수 선거 기간에도 진보당과 혁신당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이들 정당에 밀렸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4차레나 영광을 방문해 읍소했다. 영광 출신 국회의원들도 표밭을 다졌고, 중앙당과 의원실 인력들도 영광에 투입됐다. 총력전을 펼쳤지만 민주당으로서 이번 호남 재선거는 무수한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절반이 넘는 지

역민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민주당은 호남지역의 각종 선거에서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쉬운 선거만을 치렀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뒤 정작 본선에서는 느긋한 선거운동을 했다. 일부는 선거 홍보 차량을 운영하지 않거나 선거운동원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호남 본선의 매운맛'을 제대로 봤다. '때어 놓은 당산'인 선거판에서 순가락만 빨고 있던 민주당에게 이번 재선거는 지역민의 경이로 졌다.

득표율이 민주당을 압박하기에 충분했고, 이는 2026년 지방선거의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재선거를 통해 '호남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이는 호남에서 이들 정당이 세력화할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이 될 것이다. 민주당 말고도 선택지가 다양해진 지역민에게도 기회일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등을 돌린 58.92%의 호남의 마음'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